

# 광양, 봉강친환경 유기질비료 해외 수출길 올라

## 가축분퇴비 220톤 베트남 상차식... 올해 4000톤 수출 목표

광양시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 친환경 유기질비료가 해외 수출길에 오른다.

광양시 봉강면 소재 봉강친환경영농조합에서 지난 8일 가축분퇴비 220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한 선적 상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상차식에는 박광기 법인대표와 전라남도 관계자,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이날 선적된 소수나다 펠렛비료는 컨테이너 차량 10대 차량, 220톤에 이른다.

이번 베트남 수출은 법인이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제조하고 직접 수출



관료를 마련함으로써 성사됐다.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혼합유박 1종, 혼합유기질 3종, 가축분퇴비 2종의 비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2008년 설립돼 ISO 22000 인증, 유

기질비료 제조시스템 특허 등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공급업체로서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다른 지역보다 약 12% 저렴한 비료를

공급하고, 연간 약 1억 5천만원 규모의 합인을 통해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농립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에 기여해 왔다.

박광기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베트남으로는 2020년도 첫 수출 이후 코로나19로 수출이 중단됐었지만, 재정비 끝에 다시 수출길에 오르게 됐다"며 "올 한해 약 4천톤, 70만발 수출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유기질퇴비 다각화로 인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포장재 지원사업 등 공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업인의 희망찬 잘 사는 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조순익 기자

## 담양군 고서면·해남군 삼산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협약



담양군 고서면과 해남군 삼산면은 해남군 삼산면사무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고서면과 해남군 삼산면 직원 30명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을 도모하고 양 지역 간의 상생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상호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협약식은 동년배인 고근석 고서면장과 박정일 삼산면장의 오랜 인연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평소 면정의 주요 현안을 자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및 행정업무 상호 협조를 통해 지역 대표 축제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고근석 고서면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양 지역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관계를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담양=강성국 기자

## KBS전국노래자랑 화순군편 예심 참가 신청 기간 연장

화순군은 10일 KBS 전국노래자랑 화순군편 예심 신청 접수 기간을 4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예심 신청은 기존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였으나, 더 많은 군민의 참가를 위하여 신청·접수를 4월 17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접수 기간 내 미신청자는 예심 당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 앞에서 현장 접수(12:00~13:00)할 수 있다.

예심은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4월 21일 오후 1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노래 실력, 장기 등을 심사한 후, 본선에 진출할 15여 개의 팀의 참가자를 선정하게 되며, 녹하는 오는 4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세계거석테마파크 내 특설무대(우천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노래와 춤 등 다양한 장기와 끼를 가진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가해 주길 바라며, 본 행사를 통해 봄을 맞이한 군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KBS 전국노래자랑 화순군편은 오는 6월 중에 KBSI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될 예정이다. /화순=주유현 기자

## 목포, 양대체전 대비 '식품위생환경 조성 결의대회'

### 11·12일 모범업소 등 종사자 대상 음식점 환경 조성 다짐

목포시가 양대체전 성공 개최를 대비해 손님맞이 식품위생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오는 11일과 12일 목포시민 문화체육센터에서 식품점객업소 영업주·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음식점 환경 조성 결의대회를 가진다.

한국의식업중앙회 목포시지부(지부장 강성오)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목포 모범식당 영업주와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식품점객업 대표자로 나선 김태훈(한미르 대표), 오선영(예향한정식 대표), 천일훈(약산축협소 대표), 박미(미밥상 대표)씨가 완벽한 손님맞이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들은 밝은 미소, 반가운 인사, 따뜻한 친절로 전국제일의 음식점 문화조성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또한, 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음식점 환경을 제공해 목포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적정 음식과 가격, 친절함 손님맞이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목포를 만들자고 결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대 체전 대비 식품점객업 서비스 개선을 위한 '(주)JH컨설팅'의 교육을 통해 친절·정결을 강조하며 양대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한다.

## 영광 '2년 연속' 道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 기관 표창·상사업비 8400만원 확보

영광군이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 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영광군은 전남도가 주관한 '2024

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상사업비 8400만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영광군 최우수상 수상

전남도는 매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 세정 전반에 대해 엄격한 세정지표를 점수로 환산해 우수시·군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세수 확충, 세외수입, 세정운영 등 세정업무 전반에 걸쳐 총 32개 항목을 평가했다.

영광군은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지방세 미리계산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최우수상 수상은 불경기에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준 군민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추진 등 군민을 위한 한발 앞선 세무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 순천시 자활근로사업 순풍... 전년 대비 매출 대폭 증가

### 다회용기 세척사업·세탁사업 월 평균 매출 33% 성장

순천시는 지난해 신규 자활근로사업으로 개소한 다회용기 세척사업과 세탁사업이 전년 대비 월평균 매출 33% 성장을 이루면서 급변 자활근로사업에 순풍이 불고 있다고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다양한 직무경험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참여자의 근로능력

과 자활의지를 고려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에코워싱"다회용기 세척사업단은 예비군 훈련장을 추가 수요처로 발굴하여 다회용기 도시락용기를 납품하고 있다. 또한, '한여울세탁'은 소방방화복에 이어 산단 작업복 전문세탁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상반기 중 확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

## 강진원 강진군수, 문화재청 방문 국비 확보 요청

### 최용천 문화재청장 면담, 65억원 건의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8일, 문화재청을 방문해 최용천 문화재청장을 면담하고, 강진 문화재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과 고려청자요지 공원화사업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강 군수는 현안 사업인 '강진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조기 완공'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고려청자요지 공원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강 군수는 국비 사업 신청 후인 5월 3일 문화재청장과 면담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한보 앞선 국비 사업 신청 전부터 서두르는 행보로,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지원 등 어려운 재정 환경 극복과 지역 발전의 절실함을 알리고 있다.

26년째 추진 중인 강진 전라병영성 보수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조기 완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사항이며,

국내 최저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병영성의 대형 황정 유구(遺構)와 성의부에 발굴 완료 후 미정비된 해자(壕子)에 대한 정비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강 군수는 또한 문화재 활용면에서 한골목 옛담장(국가지정등록문화재), 병영성 흥교(전라남도유형문화재), 하멜기념관과 4월 19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개최되는 '병영 불굴불과' 등 지역 문화재와 축제 연계를 위해 전라병영성의 활용방안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강진=한홍주 기자

## 진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실시

### 본격 영농철 대비 도서지역 방문...사용 교육도 함께 진행

진도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에 나섰다

군은 가사도, 관매도, 조도 등에 거주하며 농기계 수리에 불편함을 겪는 도서지역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 수리와 사용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11일 조도 육동, 신전, 읍구마을을 대상으로 육동마을회관을 방문해 농기계 수리와 현장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순회 수리·교육은 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분무기 등 소형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 불편 해소와 함께 올바른 사용법과 보관 방법 등을 현장에서 바로 실시하고 농업

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품비 최대 2만원까지를 무상 지원한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철을 맞아 도서지역 농민들의 영농편의와 현장실무 기술교육으로 자가정비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한다"며 "농기계 수리·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기계의 올바른 사용과 적절한 관리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기계 고장으로 도서지역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은 오는 1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박재영 기자

## 신안군-코레일 광주본부 업무 협약 체결

### '기차 타고 아름다운 신안 여행'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신안군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코레일 광주본부(본부장 임석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임석규 코레일 광주본부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안군의 우수한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철도 여행상품 개발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안군의 관광사업 진흥에 기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코레일 광주본부는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장소를 제공하고, 신안군은 열차 여행상품 이용객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력이 신안군과 코레일 광주본부 간 상호 협력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촉진



매제가 될 것이다"라며 "철도 여행 상품 개발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신안군을 찾았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임석규 코레일 광주본부장은 "신안군의 우수한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매력 있는 철도 여행상품 개발로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1004선 신안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안=강홍복 기자

## 장성,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총력'

### 6월 말까지 '지방세 특별 징수' 전담팀 가동

장성군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장성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지난해 체납된 금액의 47%(18억3000여만 원) 징수를 목표로 특별 징수 전담팀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담팀은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영상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체납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지원금·공사대금 등 각종 수해적 행정지원 대상자의 체납 여

부도 확인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별 징수 기간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전자예금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징수 실적 보고회를 열어 징수 방안을 수시로 논의하고 읍·면 체납징수 독려반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 영암호 관광레저 기반 구축 본격화

### 영암군,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가제

영암군이 지난 5일 목포대학교에서 '영암호 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정부의 해양 신산업 육성과 연계, 영암호와 서남해안 일대를 남해안권 관광벨트 거점으로 조성하고, 체류형 해양레저관광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영암군, 해남군, 전라남도, 목포대학교와 MC 에너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등 SPC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남 서남해안권 복합관광 거점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해양레저관광은 관광산업시장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분야임을 공유했다.

나아가 최근 해안가 중심 관광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는 정책 사업 설계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조성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특히, ▲내수면 마리나 ▲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정비·관리 교육) ▲내수면스포츠가치센터(교육·체험) ▲조정·카누경기장 등 다양한 해양관광레저산업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12개월간 수행될 용역에서는 영암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모델을 설정하고, 지역 여건 분석, 실행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거쳐 단계·사업별 추진전략과 재원확보 방안 등을 마련한다.

영암군은 용역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선제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호 중심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산·관·학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건립 계획을 밝힌 영암-광주 초고속도로와 지역 인프라인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등을 해양레저관광과 연계해 영암호 일대를 전국 해양레저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형두 기자